

# 해남에 30년만에 영화관 들어선다

### 해남시네마·청소년누림문화센터 내일 개관 136석 규모 상영관 2개...연중 무휴 운영 예정

해남읍 작은 영화관 '해남시네마'가 13일 개관한다.

해남군에 영화관이 운영되는 것은 1990년대 중반 마지막막으로 극장이 문을 닫은 이후 30여년만으로, 군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해남읍 해리에 문을 여는 해남시네마와 청소년누림문화센터는 4,539㎡ 부지에 연면적 2,171㎡, 4층 건물로 1층은 영화관, 2~3층은 청소년 복합문화센터로 운영한다.

특히 작은 영화관 건립은 민선6기 당시 장소 문제로 사업이 한차례 무산되었다가 민선7기 출범 후 새롭게 추진한 사업으로, 농어촌 지역 가족단위 문화공간 부족을 해소하고, 구도심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영화관은 136석 규모의 상영관 2개

(1관 91석, 2관 45석)와 휴게공간으로 구성돼 있다.

연중 무휴로 관람료는 2D는 6,000원, 3D는 8,000원이며,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청소년은 2D요금에 한해 1,000원을 할인한다.

13일에는 개관식과 함께 개관 기념으로 오후 4시와 7시 20분 군민 무료 상영을 실시한다. 무료상영작은 조우진 주연 '발신제한' 고두심·지현우 주연 '빛나는 순간'으로 당일 정오(12시)부터 선착순으로 티켓을 배포한다.

또한, 영화관 개관 이벤트로 7월 말까지 현장티켓 1장 구매 시 평일 관람권을 증정하며, 개관 기획전으로 평일 오전 예술·독립영화를 상영하는 '씨네블런치' 행사도 진행한다.

한편 청소년누림문화센터도 13일 개관과 함께 본격 운영될 예정으로 각종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 중이다.



청소년복합문화센터는 2층은 댄스 연습실, 개인·단체연습실, 녹음실에서 방송 댄스와 보컬 교육 등 엔터테인먼트 관련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며, 학습실과 휴게공간이 들어선다. 3층은 북카페와 함께 3D프린터 활용, 요리 교실 등이 운영될 창작공작실을 비롯해 다목적강당과 사무실 등으로 채워진다.

만 9세부터 24세까지 청소년은 시설 대부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기동취재본부

## 장흥군, 야간 교통사고 예방 플래시윙커(소형경광등) 설치

### 47개소 65개 설치

장흥군은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곡선형 도로 및 과속 사고다발 구간에 플래시윙커 47개소 65개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플래시윙커란 불빛을 발산하는 소형 LED 경광등으로서, 야간에 시야 확보가 어려운 커브 및 경사 구간 등 주요 교통사고 위험 구간에 설치하여 운전자의 주의력 환기를 통한 안전운전을 유도하는 교통안전시설물이다.

장흥군은 이번에 장흥경찰서와의 협의를 통해 유치 녹용삼거리 커브 구간 및 호계터널 진입부 등 주요 사고 위험구간 47개소를 선



정하여 65개 설치를 완료했다.

장흥군은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 안전속도 5030 속도줄이기 사업,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장흥=김도영기자



## 세계모란공원, 야간경관개선사업으로 활력 강진군, '관광지 및 지역상권 경관 활력 조성사업' 공모 선정

강진군은 지난 7월 전라남도에서 실시한 '2021 관광지 및 지역상권 경관활력 조성사업 공모' 야간경관개선 부문에 세계모란공원이 선정되어 총 사업비 2억 원(도비 6천, 군비 1억4천)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전남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행한 야간경관개선 사업으로 전라남도가 주관했으며, 1차 서면평가와 2차 현장 평가 등 거쳐 엄격한 심사를 거쳐 강진군, 여수시, 화순군 등 3개 시군이 최종 선정됐다.

군은 확보한 예산으로 ▲모란 조형물 및 조명 설치, ▲컷오프 가로등 설치, ▲계절별 소규모 야간 축제를 위한 공간 조성 등으로 군민과 관광객이 야간에도 안전하고 즐겁게 모란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욱 군수는 "접근성을 높이고 푸소, 나이트드림과 연계해 주변 상권을 활성화 시키고 모란공원을 매일 걷고 싶은 공원으로 만들어 강진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기자

## 진도군, 농촌신활력플러스 공모 선정

### 70억원 사업비 확보...2025년까지 농촌활력지원센터 조성

진도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2년도 농촌 신활력 플러스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7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군은 사업비 70억원을 투입, 공동체 중심 융복합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한 사통팔달 진도 푸드허브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촌활력지원센터 조성 ▲신활력 아카데미 운영 ▲농촌융복합산업 공동체 발굴 육성 ▲식도락 투어프로그램 운영 ▲진도푸드 직매장 ▲공동체 공유부엌 조성 ▲푸드테라피 카페 ▲케이푸드 가공센터 등을 구축할 예정이다.

공모 사업 확정을 통해 주민이 주도하고 지역 내 흩어진 자원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엮어 진도 농업의 새바람을 불러일으킬 성장 동력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

또 농업소득 증대, 관광 활성화, 청년인구 유입, 일자리 창출 등 지역의 브랜드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올해 12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사업계획을 승인 받아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용환 추진단장(진도군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은 "지역에 흩어져 있는 우수한 민간 활동가 조직과 사회적 경제조직들을 하나로 모아 육성하고 참여 조직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역량을 집중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동진 진도군수는 "진도군 비전 2030 사업인 진도 국제항 사업과 진도읍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 상권 활성화사업 등과 연계 추진하여 시너지를 극대화해 나가겠다"며 "다양한 농촌 융·복합 콘텐츠 발굴로 청년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 발전에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중추적인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기자



## 강진군, K-STAY 호텔 개장 체류형 관광지 조성 '박차'

### 16일 오전 11시 오픈기념행사

지난 7월 1일 'K-STAY 호텔'이 군 동면 삼신리에 최신 시설을 갖추고 문을 열었다.

민선 7기 공약사항인 체류형 관광지 조성의 일환으로 설립된 'K-STAY 호텔'은 2019년 10월 강진군과 현진개발(주)이 관광숙박시설 건립을 위한 MOU 체결 후 2020년 1월에 착공하여 2021년 6월 24일에 준공했으며, 오는 16일 오전 11시에 호텔 오픈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호텔은 대지면적 4,243㎡, 건축면적 1,077㎡ 규모로 4층(48객실)높이로 조성되었다. 1층은 프론트와 연회장, 레스토랑, 비즈니스센터, 카페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2층부터 4층까지 객실

이 마련돼 있다. 객실은 종류별로 스탠다드 더블과 트윈(9.8평)이 20객실, 디럭스(12평) 24객실, 패밀리티윈(15평) 3객실, 로얄스위트룸(23평) 1객실로 이루어져 있다.

요금은 오픈기념으로 스탠다드 더블 6만 원, 트윈 7만 원, 디럭스 8만 원, 패밀리티윈 9만 원, 로얄 스위트룸 12만 원으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신흥권 대표는 "고향 강진에 투자해 군의 관광과 스포츠 마케팅 정책에 맞춰 일하게 되어 기쁘다"며 "숙박시설을 찾는 관광객과 대회 참가 선수들이 강진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K-stay 호텔 직원들도 함께 노력할 것이며 군민의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기자



# 만나서 영광입니다!

영광의 청정자연과 어우러져 탄생한 건강한 우리 식품을 만나보세요